

## <마산, 가린혹> 전지홍 작가 인터뷰

- 인터뷰어 모희  
인터뷰이 전지홍

### Q1.

그간 작가님의 작품에 담긴 도시는 특정 인물의 서사를 품어왔습니다. 가령 <아주 천천히, 부끄러움 사이를 걸어본다>(2022)에서 소백산은 외삼촌에 대한 기억이 깃들어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다루는 '마산'은 어떤 인물의 기억과 풍경을 더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서 왔어요?"

부모의 이주로 소극적 이주를 경험한 '나'는 왜 지금의 억양을 갖게 되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떠난 고향은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서서히 열어졌고 제 사투리 또한 점점 숨기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마산'은 제 사투리의 시작이자 고향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마산'은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마산이모와의 서사에서 출발합니다. 목에 큰 혹이 있던 마산이모와 함께 마산의 이곳저곳을 걷은 기억부터, 고향을 떠나야 했던 가족의 서사 그리고 오랜 시간 떠나왔지만 여기도 저기도 아닌 '나의 사투리'로 여전히 고향에 대하여 질문받는 저를 마주합니다.

가리고 싶었지만 가려지지 않았던 마산이모의 혹처럼, 숨기고 싶었지만 숨겨지지 않았던 '나의 사투리'를 더듬어 보며 다시금 저만의 자세와 속도로 '마산'을, 그리고 '나의 서사'를 걸어보고자 합니다.

### Q2.

직접 마산을 걸으며 기록한 작업은 작가님의 걸음과 시선이 거쳐간 '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옛 지도와 공통점을 가집니다. 실제로 작가님께서 '땅그림'이라 불리었던 우리나라의 고지도를 참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작업에 녹아든 부분 또한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를 어떤 지점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의 옛 고지도라 하면 잘 알고 있는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찬찬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옛 지도가 많습니다. 땅 모양 속 글만 가득 적힌 <조선팔도고금총람도> 혹은 한 사람의 자취를 따라 그려낸 <월중도>, 당대 사람들이 믿은 세계관 지도 <천하도> 등 "이것도 지도인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옛 고지도는 당대 사람들과 공동체가 이해한 관심사를 지도(땅그림)로 그려냈습니다. 그들이 직접 발로 걷은 땅과 길을 따라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같은 공간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향유하는 시간 등. 저 역시 제가 걷고 있는 길을 감각하는 것,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전통 지도 속 걷기 방법과 연결 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니까요. 저는 지금의 우리 시대의 풍경을 살피고 기록을 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Q3.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에는 길고 구부러진 길, 웬지 모르게 텅 빈 장소가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도시의 수많은 흔적 중 그림에 새겨진 장소들은 어떻게 발견되고, 그려졌나요?

평소 공간을 걷고 답사하며 도시의 서사를 발견하는 것을 즐깁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며 지형과 계절, 역사를 감각하기도, 미시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걸어보며 내 개인의 이야기를 품은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주하는 것들은 신체가 경험하고 감각한 방향과 크기, 거리들로 위치되고 새겨집니다.

이번 <가린혹>에서는 잊었던 것들을 조금씩 드러내고, 다듬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정처 없이 이어 걸은 나의 유랑길부터, 다시 갈 때마다 메꾸어지는 땅들, 그로 인해 또 길을 잃는 경험 등을 열린 먹빛으로 쌓아 올리고 남겨나갔습니다. 비어있지만 아늑한 여백은 어쩌면 나와 우리의 서사가 있던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Q4.

작가님이 길을 걷는 방식과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서로 닮아 있는 듯합니다. 자연스럽게 작품의 서사만큼이나 사용되는 재료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텐데요, 재료를 선택하기까지 고려했던 점이나 작업 과정에 대해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겨우 발자국을 뺐는데 몇 발짝 못 가 다시 돌아보고,  
문득 멈추어 괜히 쓱-하고 습기를 머금은 돌을 만져보다  
중간. 중간. 끊어진 발자국을 따라 낮게 걸어보기도 하며  
열은 풀벌레 소리를 따라 꽤나 느린 호흡으로 길을 걸어본다.  
서너 시간 걸어 다니며 꽤 먼 거리를 지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겨우 몇 걸음 정도인 날이 대부분이다.

'다음에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은 빠른 호흡으로 지나치기도 한다. 하지만  
빠른 걸음은 욕심이 많아 신중치 못한 순간이 종종있다.  
갑작스러운 계절의 변화로 흠이 나의 발을 움푹 삼키거나,  
네시의 아지랑이를 급히 따라가다 너무 멀리 와버려 어둑한 길을 헤매기도 한다.  
나만의 자세와 나만의 속도, 나만의 호흡으로 걸어본다.

그 호흡은 종이 위에서 얽지만 용기 있는 움직임이 되기도,  
마치 산책이 끝난 후 쓱-하고 바닥에 흠을 쓴 듯한 선이 되기도,  
흠뻑 습기를 머금은 색이 되기도한다.

(작가 노트)

제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의 호흡을 그림으로 새길 때 역시 비슷한 호흡으로 다지려 노력합니다. 그런 면에서 동양화의 세필과 먹은 제 걸음의 호흡과 잘 맞춰 나갈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얇은 세필을 주로 사용하는데, 짧은 단위부터 긴 단위, 느린 호흡에서 긴 호흡까지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점이 저의 걸음

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먹은 한 가지 색으로 수많은 온도감을 표현합니다. 이번 <가린혹>에는 가려졌던 것을 서서히 드러내기 위해 먹빛을 드넓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처럼 걸음의 태도를 사용하는 재료로써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넓은 종이(순지) 위에 얇은 세필을 잡은 저의 손은 정처 없이 유랑하는 발걸음과 같고, 먹빛은 제가 세상을 보는 온도감과 닮아 있습니다.

Q5.

지도를 닮은 그림과 벽 위에는 시화(詩畵) 속 '시'와 같은 텍스트가 등장합니다. 작가님 특유의 억양(사투리)과 지역성이 각각 시와 그림으로 비유된 것 같기도 합니다. 텍스트와 이미지를 함께 다루는 작업에서 특별히 헤아렸던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소 한 공간 안에서 텍스트와 회화, 책자를 통해 꾸준한 시선과 균형 있는 거리감을 제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로 텍스트를 먼저 다루기에, 이번 작업에서는 나의 말소리가 시의 내용으로도, 글씨라는 시각적 새김으로도 전달되기를 바랐습니다. 텍스트(=시)를 매만지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회화와 출판물을 다루는 자세로 이어집니다. 특히 이번 전시의 회화에서는 앞선 시의 스며들거나 열어지고, 들려오는 듯한 말의 속삭임이 느껴지도록, 책자에서는 (어떤 시간이 먼저인지, 어디서부터 보아야 할지가 아닌) 회화와 글 사이의 중간 다리로서 여기 저기를 함께 걸어보는 보폭을 제안해 보도록 했습니다.

Q6.

전시장의 작품은 동일한 높이에 서로 다른 각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가님은 '보는 일'과 '그리는 일', 다시 '보여주는 일'을 하나의 선상에서 다루는 듯합니다. 특히 회화의 평면을 단순히 바라보기 위한 것이 아닌 경험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일구어내고자 하는 회화적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이를 위해 그림의 지지체에 변주를 주며 떠올렸던 고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2019년부터 4년간 마산을 걸었습니다. 마산은 주소도 이름도 바뀌어 제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없이 계속 걸어보는 유랑의 시간이 길었습니다. 유일하게 선명히 기억하는 마산이모의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길을 잃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 반대로, 위로, 아래로 걷고는 했습니다. 마산은 바다 앞 언덕에 도시가 위치해 있기에, 쉽게 무언가를 찾을 수 없었던 저는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 내려다보며 다음의 여정을 구상하고 너머의 풍경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느리게 걸은 감각은 느린 회화로 그려졌는데요, 유랑의 감각과 함께 회화를 경험하길 바라며 비스듬한 지지체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공간과 마음을 느리게 감각하고 유람하기를 바랍니다.

Q7.

기억과 기록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심연이 있습니다. 기억을 시각화하는 일은 둘의 격차를 좁히거나, 먼 둘 사이의 거리를 오가고, 그 간격을 벌려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의 작업을 위치 짓는다면 이 중 어느 곳에 가까울까요?

기억과 기록의 사이라면, 저의 작업은 잘 보내기 위한 '기록'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떠나간 가족을 잇기 위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곳을 떠나와야 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겠지, 그림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잘 정리하지 못한 기억은 나와 가족의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잘 보내주기 위해, 그리고 잘 마주하기 위해 다시금 내가 떠나온 지역과 내가 살아 가는 곳을 나의 속도로 걸으며 시각의 언어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8.**

**<마산, 가린혹>은 말에서 말,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전해지는 구술사를 닮아 있습니다. 들었던 이야기를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며 더해지거나 덜어진 것들이 있을 듯합니다. 파편화된 기억을 한 화면에 그러모으며 개입되는 것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꾼인 어머니와 함께 전국의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전래동화 같은 역사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진짜 있는 이야기 같기도, 없는 이야기 같기도 한 긴가민가함 속에 어느 순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빠져있었습니다. 말에서 말로 전해져 동심을 기조로 쓰이는 전래동화와 같이(그리고 어머니가 말해주는 이야기같이), 제게 전해지는 이야기와 잘 정리하지 못한 시간 속 저의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진 한 덩이의 글과 한 폭의 그림은 믿고 싶어지지만 동시에 흩어져버릴 것 같은 긴장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합니다.

**Q9.**

**작가님의 작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실은 끊임없이 닳거나 새로워지는 것임을 인식케 합니다. 더욱이 마산은 지명이 바뀌어 그 이름이 사라진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땅 위의 경계를 가르고 이를 표지하기 위해 더해진 것들은 물리적인 장소와 함께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거나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산책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산책하는 마음은 길 위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나와 주변을 바라보고 천천히 사유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에 아쉬워하거나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붙잡아 둘 수 없기에 그리고 붙잡지 않아도 되기에 꾸준하고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누비는 산책의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자 합니다.